

하나됨과 나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화를 누리십시오”

< 고린도전서 1장 3절 >

- 9월은 결실의 계절입니다. 각자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 연령별사랑방 연합찬양모임이 오후 2시, 자연예배당에서 있습니다.
- 사랑방공동체 학교 전체 학부모교육이 21일(주일) 오후 3시부터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 공동체 안에 아픈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십시오.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이창운 집사 · 양일자 선생 가정 ( 어머니 생신 )  
김중필 · 이현숙 집사 가정 ( 감사 )

강단을 꽃으로 :

신협(한금계좌) 사랑방교회(정재훈) 131-021-578132  
농협(선교공동체계좌) 대한예수교장로사랑방교회 225036-55-003053

주일 교회 승합차 운행시간 오전 9시50분 의정부역 6번 출구 영풍문고 앞

##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역할공동체 : 생활공동체 예배공동체 교육공동체 사역공동체 선교공동체  
선 교 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제 42 - 37 호

2025년 9월 14일

#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사  
랑  
방  
은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 열매를 깨뜨릴 때

무림리에 포도향이 가득합니다. 열매가 주는 기쁨은 추수하는 사람 뿐 아니라 주변에도 전해져서 함께 누리게 되는 듯합니다.

포도를 생각하면 포도나무 비유도 생각이 나고 어린 시절 주일학교 출석부도 떠오릅니다.

포도 알을 하나씩 붙여 송이를 다 채우면 상을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둘째를 임신 했을 때는 탐스럽게 익은 포도송이를 생각하며 뱃속 아기를 '송이'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 매일 성서일기 말씀과 더불어 읽는 묵상집에서 포도 이야기가 나와서 반갑기도 하고, 포도가 익어가는 계절에 이 부분을 선정한 것이 참 지혜롭다는 생각을 하면서 가벼운 마음으로 글을 읽고 있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감동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의 365 묵상집. [주님은 나의 최고봉] 9월 2일자 지면에 나오는 글입니다.

“ 예수님께서서는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충만하신 복을 누릴 것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나를 믿는 자는 그가 받은 모든 것이 그로부터 나오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자기실현과는 정반대입니다. 주님의 목적은 사람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주님과 정확하게 같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특징은 자신을 소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가장 귀한 것들을 부으시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고 좋은 포도로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포도즙을 짜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열매를 맺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자신을 소모하여 포도즙을 내기 원하신다는 대목에서 눈이 멈췄고 몇 번이나 읽고 또 읽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열매 맺는 그 경지에 이르기를 선망하며 열매를 맺으면 다 이룬 것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소모되어 형태가 없어져 더 좋은 것을 내라는 요구를 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냥 포도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포도알을 깨뜨려 즙을 내어 목마른 사람들의 갈증을 풀어주고, 그들에게 참된 기쁨을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깨뜨리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과 같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향유옥합을 깨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의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께서 이 일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 주님께서서는 이런저런 계산에 얽매이지 않고 모든 것을 주께 다 드린 마리아가 했던 행위를 우리도 할 때 기쁨을 이기지 못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의 생명을 쪼개셔서 세상이 구원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를 위해 우리의 생명을 쏟아 부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온전히 부어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열매를 깨뜨리고 으깨고 즙을 짜낼 마음이 있습니까?

포도열매가 주는 기쁨을 맛보는 요즘, 다시 한번 열매 맺은 우리를 통해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한주간의 말씀

“그대의 승낙이 없이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대가 선한 일을 마지못해서 하지 않고,  
 자진해서 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 빌레몬서 1장 14절 말씀 >

<수요기도회>

인도 : 정재훈 목사  
 찬송 : 491, 325 / 420  
 기도 :  
 성경 : 신명기 18장  
 제목 : 온전한 예배를 드리십시오

1. 내용: 약속의 땅에서 지켜야 할 규례들. (What)  
 <문단구분>  
 1~8절 레위 사람과 제사장의 뒤통에 대한 규례  
 9~14절 주술에 대한 경고  
 15~22절 하나님의 예언자에 대한 약속
2. 의미: 레위인은 모든 것이 예배와 관련되어 있다. (Why)  
 1)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섬기도록 선택된 사람들이다.  
 2)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진 장자들이다.  
 3)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를 통하여 말씀하신다.
3. 적용: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 힘쓰자. (How)  
 1)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지지하자.  
 2) 예배의 환경을 잘 돌보고 섬세하게 준비하자.  
 3)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자.

2년쯤 전부터 아버지는 초기 치매와 거동 불편으로 주간요양보호 센터(데이케어센터)에 다니고 계신데, 사실 센터에서 전화가 오면 겁부터 난다. 아버지께서 센터에서 무슨 사고를 치신 것은 아닌지, 아니면 아버지한테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닌지 하는 걱정이 들기 때문이다. 최근에도 2번이나 연락이 왔다.

한 번은 평소에 음식을 남기지 않으실 정도로 잘 드시는 아버지께서 음식을 남기시고, 대변을 잘 보지 못해 힘들어하신다고 연락이 왔다. 아마도 1주일 이상 변을 못 보신 것 같단다. 그래서 그날 저녁 관장약을 사 들고 아버지 집으로 가서, 관장을 해드렸다. 다행히 변비는 나아지신 것 같았다. 문제는 며칠 뒤 2번째 전화였다. 퇴근 무렵에 아버지가 오한과 고열로 힘들어하신다고 병원에 모시고 가야 한다는 연락이었다. 아내에게 센터로 와달라고 전화하고, 나도 서둘러 퇴근했다. 그런데 센터 근처 가정의학과에 가다가 아버지가 설사를 하신 것이다. 먼저 도착한 아내는 오한이 심한 아버지를 근처 큰 병원의 응급실로 모시고 갔다. 응급실에서 수액과 해열제를 맞고 CT까지 찍었다. 응급실 의사는 장염 증상이 있다며 입원을 권했다.

그렇게 아버지와 함께 3박 4일간 병원 생활을 하게 됐고, 다행히 낮에는 큰아들과 교대하며 출근도 할 수 있었다. 병실에서는 다양한 환자와 함께 지냈다. 다들 연세가 많은 탓인지, 아픈 탓인지 아버지처럼 불만이 많았다. 어떤 환자분은 수술 날짜도 안 잡혔는데, 왜 물도, 밥도 못 먹게 하나면 몇 시간째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다. 그나마 아버지는 장염이 심하지 않아 죽도 드실 수 있어 다행이었고, 지난 토요일에 퇴원해 센터에도 나가셨다. 약을 열흘 치나 받은 덕분에, 지난 일요일에는 센터에 못 가시니 내가 약을 챙겨 드려야 했다.

그동안 아버지는 동네 큰 교회에서 점심을 준다는 이유로 일요일마다 그 교회에 출석(?)하신다. 매주 가시니 그 교회에서 나름 유명(?) 인사가 되셨고, 그 교회의 집사님과 권사님께서 챙겨주신다. 함께 주일 예배도 드리고, 점심도 먹은 뒤 약을 챙겨 드렸다. 아버지와 함께 교회에 가다니, 하나님의 뜻이 있나 보다. 아버지를 **집사**로 모셔 드리고 돌아 나올 때,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머리를 맴돈다. “기도 시간에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데도 아픈 게 나아지질 않네.” 나도 기도해야겠다.

비움사랑방 이충환 집사



## < 사랑방공동체학교 소식 >

### 꾸러기학교

무더운 열기가 서서히 지나갑니다. 구름이 뜨거운 햇볕을 가려주고, 선선한 바람이 불어 놀기 좋은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오전에 자기 물병을 매고 밖에 나와 산책도 하고, 트램블린도 타고, 자전거도 타고, 축구도 하고, 높은 하늘 아래에서 신나게 놀았습니다.

수요일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하는 오세아니아 특별전 '마나모아나'를 보고 왔습니다. 가기 전 책도 보고, 그림도 보고, 뉴질랜드 원주민들의 멋진 공연도 봤습니다. 낮선 오세아니아가 한결 가까워지면서 부푼 호기심을 가지고 국립중앙박물관에 다녀왔습니다. 들어가는 입구부터 섬과 섬을 이어주던 카누를 영상으로 띄어 배를 타고 들어가는 느낌에 아이들은 신났습니다. 거기에는 오세아니아 사람들이 오랜 시간 자연에서 살면서 만든 지혜와 멋이 있었습니다. 생존을 위한 물건들과 의식행위를 위한 물건, 멋을 꾸며주는 물건 등 많은 부분에서 우리나라와 정말 다른 느낌을 주었습니다. 아이들도 아주 즐겁게 관람하고, 카누 한 번 더 타고 왔습니다.

올해의 마지막 생일잔치가 있었습니다. 쑥스러움도 많고, 귀여움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 다운이의 생일이었습니다. 다운이를 위해 꾸러기들이 오랜 시간 준비한 카드와 어부바, 꽃가마, 꽃마차, 카페트 썰매를 진이 빠지도록 열심히 태워줘 다운이가 많이 행복해 했습니다.

< 교사 : 이어람 >

### 어린이학교

드디어 날씨가 선선해졌습니다. 목요일까지는 그래도 낮 기온이 30도까지 올라갔지만 금요일부터는 딱 활동하기 좋은 기온이 되었습니다. 무더운 여름과 시린 겨울이 길어진 계절 주기 속에서 우리는 이 짧은 가을을 더 잘 지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월요일 예배 시간에는 멋쟁이학교 이어진 전도사님께서 어린이들을 위해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읽고 신앙의 선배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우리도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야겠다고

배움과 가르침

생각했지요.

금요일 3교시에 있었던 2학기 첫 LTSS 주제는 '팀워크'입니다. 팀을 나누고, 공을 차거나 받는 기술도 배우고, 작전도 짜고, 그리고 대결을 해본 후에 경기에 대한 진단도 해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팀워크를 익힐 경기 종목은 '발야구'입니다.

운동장에서 운동하는 일이 좀 뜸했는데 발야구 뿐 아니라 패드민턴, 이어달리기, 경찰과 도둑 등을 하며 운동장을 누비는 어린이들이 생기 넘치고 즐거워 보입니다.

목요일 저녁에는 방학과제를 으뜸으로 잘한 친구들이 받은 '선생님과 함께 하는 디너권'을 사용하였습니다. 상품으로 디너권이 나간 건 참 오랜만이어서인지 수상한 세 친구 모두 디너권을 처음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 날의 맛있고 따뜻한 식사 한 끼가 친구들에게 다음에도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을 주었는지 궁금합니다.

< 교사 : 전선희 >

### 멋쟁이학교

드디어 5학년이 오랫동안 공을 들였던 해외문화체험학습을 떠났습니다. 학교의 중심역할을 맡았던 데다가 여행준비까지 하려니 몇 달 동안 정말 바빴습니다. 시기에 따른 불안감과 직접 마주할 온갖 경험들을 향한 기대를 함께 안고서 커다란 캐리어와 몸을 비행기에 실었습니다.

이번 주는 -차분하게 생활하자-는 표어로 시작하면서, 점차 시간표에 따른 생활패턴이 익숙해졌습니다. 임시 학생회가 역할을 맡아주었고, 6학년은 스스로 진로를 찾아보는 수시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곧 열릴 탁구대회를 준비하는 멋쟁이들의 손놀림이 매우 적극적입니다. 열린수업과 체육시간에도, 점차 커지는 일교차에 쌀쌀해진 저녁에도, 탁구를 열심히 치는 멋쟁이들의 공간은 항상 후지답근합니다.

자전거 쳇바퀴를 밟은 것처럼, 학교생활이 본격적으로 궤도에 올랐습니다. 많은 인원이 있는 만큼, 앞으로 멋쟁이들이 함께 지내며 넓은 그릇을 만들어 나갈 성장과 성숙이 있길 기대해봅니다. 그리고 지금 프랑스에 머무르고 있는 장성아 선생님과 5학년 멋쟁이들의 안전과 일정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 교사 : 이어진 >

## 식혜를 만든 날

예전에 명절이 다가오면 엄마가 ‘미현이 뭐 먹고 싶어’라고 물어보시곤 했다. 그러면, 제일 많이 이야기 했던 것은 ‘식혜’였다. 사먹는 식혜가 더 달콤하고 맛있었지만 엄마가 만들어주는 식혜는 그것과 다른 느낌이 있어서 좋아했던 것 같다. 그 때는 식혜를 어떻게 만드는지 전혀 모르고 있던 터라.. 단지 먹고 싶다는 생각에 한 말이었다. 결혼 후 한번 내가 한번 해보아야지 하고 식혜를 만들어 본 적이 있었는데,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이 무척 오래 걸려서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하고 생각했었다.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을 그렇게 쉽게 말 한마디로 먹을 수 있었구나.. 생각하면 엄마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기까지 한다.

그런데, 그렇게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하고 생각했던 식혜를 어제 또 만들었다. 권사님 두분과 함께 옛기름을 불리고, 밥을 지어 삭히고, 끓이고, 거르고 하면서 하루 종일 걸려 사십여 병의 식혜를 만들었다. 몇 달 전에 떡집을 하시는 집사님의 제안으로 하게 됐는데, 이번 여름에 너무 더워서 한 동안 만들지 않다가 오랜만에 다시 만든 날이었다. 이번 까지 합쳐서 그래도 네다섯 번은 만든 것 같은데 아직도 순서가 착착 생각나지 않는다. 장권사님께 ‘오셔서 맛만 보시라’며 하자고 했는데... 결국에 장권사님 손길이 안 닿은 곳이 없게 되었다. 지나가다 맛을 보신 한 집사님은 단맛이 은은하게 감돌아서 좋다고 호평을 해주셨고, 만든 우리들도 맛있다고 입을 모았다.

식혜는 참 시간이 오래 걸린다. 옛기름을 불리는 시간, 양금을 가라앉히는 시간, 밥을 삭히는 시간, 모든 순서 하나하나가 기다림의 연속이다. (그래서, 만들 때마다 이건 누가 처음 만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권사님은 식혜를 만들 때 항상 좋은 재료로 정성껏 만들자고 하신다. 떡집에서 식혜를 사는 손님들 입장에서는 사먹는 식혜겠지만, 그들이 모르는 그 너머에 있는 시간과 정성을 식혜 맛에서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

디아코니아사랑방 노미현 사모

## <수요 정오기도회>

인 도 : 정재훈 목사

찬 송 : 478장, 488장

성 경 : 잠언 15장 1 - 7절

말 씬 : 의로운 대답이 이끄는 관계

중보기도 :

1. 세계평화와 선교를 위해 <세계 평화를 위한 기도>

3년이 넘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점차 진영으로 갈라지고 있습니다. 서로 연대를 통해서 세력 확장을 시도하고 있고, 최근에는 폴란드의 영공을 침공하기도 하며, 확전의 위험이 있습니다. 확전이 되지 않고 전쟁이 멈출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2. 교회갱신과 공동체를 위해 <민들레 공동체를 위한 기도>

여전히 수해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인 민들레 공동체 식구들이 지치지 않고, 지금의 시간들이 큰 의미로 남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3. 지역사회와 우리 공동체 위해

- 1) 여행 중에 있는 멋쟁이 학교 5학년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안전하고 좋은 여행을 위해서
- 2) 공동체 안에 아픈 지체들을 위해서

## <생활공동체 소식 >

가을이 깊어지는 요즘입니다. 느티나무들이 잎사귀를 물들이고 이제는 매미 소리가 아닌 귀뚜라미 소리로 가을밤의 정취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름 내 자란 풀들을 뽑고 가을 걷이를 하고 있습니다. 두더지들이 땅콩을 많이 먹어서 이른 추수를 했고, 빨간 고추도 이제 크기가 작아졌습니다. 깨도 털고 배추와 무도 돌보면서 겨울 먹을거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냄새부터 달라지는 계절의 변화를 느끼며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도우시는 손길을 생각합니다.

< 장영미 전도사 >